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설교목사
Preaching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범죄하는 다윗” (David Commits a Sin)

■ 사무엘하 11 : 1 - 17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캔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밋세바의 스캔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왜 이런 범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인간인 까닭에 죄의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신앙에 투철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변 국가들도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압몬이라는 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전쟁에 출전했고, 다윗은 왕궁에 남아있었습니다(삼하 11:1). 이제 다윗에게는 전쟁의 치열함도 없고 함께 회의를 할 부하장수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설명할 수 없는 나른함과 공허함을 느껴 왕궁의 고즈넉한 옥상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사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을 쾌락의 밋으로 유혹했습니다(삼하 11:2). 사탄의 밋에 걸린 다윗이 쾌락의 유혹에 빠져 밋세바를 바라보았을 때 ‘심히 아름다웠다’가 아닌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범죄하게 된 치명적인 이유는 상황과 분위기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2. 일단 유혹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처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유혹의 상황을 방치해 놓았다가 결국 유혹의 밋에 걸리게 됩니다. 다윗은 신하를 시켜 목욕을 하는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였고 그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혹에 빠진 다윗은 밋세바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동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밋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게 된 다윗은 이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으로 태어나는 아기를 우리아의 아가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은폐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유혹에 빠져들면 인간은 이성 잃은 짐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이 시키는 대로 마치 우리아가 전쟁을 하다 죽은 것처럼 해서 죽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간음만 한 것이 아닌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유혹의 자리에서는 도망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벧전 5:8). 유혹의 상황에서 그 자리를 털고 빨리 나와 도망하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3.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목숨을 건 진지한 태도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적 쾌락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하며 은혜를 받을 때 목숨 걸고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을 태도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누리는 것은 신앙적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잠시 영적으로 헤아려져 있는 우는 사자의 입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당했고, 그의 가정과 모든 관계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맺는 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는 요새처럼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경고이며, 한 번 유혹의 밋에 걸리면 브레이크 없는 불슬레이처럼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이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배드리는 자세, 은혜 받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시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와 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 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 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I 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I 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702호
	II 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II 부 (40대)	오전10시	301호
유아부(13개월-4세)	III 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III 부 (50대)	오전10시	401호
					IV 부 (60대)	오전10시	301호
유치부(5세-7세)					V 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에바다부	I 부	오전11시20분	본당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II 부	오후2시	603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새 가 족 부	I 부	오전10시	602호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II 부	오후12시40분	
대학부 토요일집회	오후 4시		501호		III 부	오후3시20분	
청년1,2부 토요일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802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소요리문답 I · II 부		오전10시, 12시40분	801호601호
				신앙강좌 I · II 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목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박종민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혜영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영한 감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이사라, 권요셉·조예스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마오에,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
 (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원(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한미순(일본), 김광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태식, 윤왕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산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Steven Martinolich

11:20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Call to worship Psalm 20:5-6	Presider
Invocation	Presider
* Hymn 2(6)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No. 2	Congregation
* Doxology 1(1)	Congregation
Prayer	Elder Kap Jin Lee
Hymn 620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Acts 4:13	Presid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634(7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acher
Anthem God's Omnipotent hand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Congregation
Member' s Fellowship	Congregation
SermonThe Ordinary Doing the Extraordinary	Rev. Steven Martinolich
* Hymn 516(265)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The Ordinary Doing the Extraordinary

Acts 4:13

Summary of the sermon

Two extra ordinary men have done an extraordinary thing. By the power of God, for the glory of God, both Peter and John and the world are to simply witness. That is all we can ever do but what an amazing calling to be able to do so. Peter and John had just healed by the Name of Jesus a crippled man from birth, and the Word reveals many things regarding this.

First, as our title says, extra ordinary people are doing extraordinary things. Compared to the rulers, elders, and High Priest, Peter and John were simple commoners. Yet the rulers, elders, and High Priest were amazed as they saw the courage and boldness of Peter and John. What they saw were two men who had the knowledge of God, who put their trust in this knowledge and so lived experiencing God, and through time grew to have an unshakable belief and faith.

Secondly, the text reveals extra ordinary people are doing extraordinary things by God's power. The rulers recognized Peter and John as people who were with Jesus. But they failed to see Jesus is now in the present with Peter and John. Through the Holy Spirit God's power is working through ordinary people, and the presence of Jesus is revealed.

Thirdly, the text reveals extra ordinary people are doing extraordinary things for God's glory. God has chosen to work through our faith, and so, when the Holy Spirit is working through us, we and the world witness the glory of our almighty God.

This is your calling and inheritance as chosen people of God, His precious children. Be bold! Put full trust in His knowledge to experience Him, to grow in faith, to be used by His power, to reveal His glory to the world.

Announcement

-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Bible study is after fellowship so please join so we can together dig deeper into the mighty word of God.
- We are asking for volunteers to serve as ushers, choir members, teachers, website, pamphlet making, and other church events.
- June and July sermons are now on Website. Please check them out!
- Wednesday night Bible Study 8:30-9:30 in Room 603. Please come out and join.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대학부 헌신예배-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정수길 목사	하영수 장로
III	오후 2시	한상은 목사	윤봉준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43:4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3(부:사44) 다 합 께 2부35(사84편)
*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64(13)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삼하 12:7-1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헌금, 선교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기쁨을 담는 그릇" ... 박노철 목사 (Vessel for Joy)
* 찬 송 Hymn	211(346)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오후 5시 · 인도:최화미 회장 ·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19:9 인 도 자
찬 송	 575(302) 다 합 께
기 도	 최근우 부회장
찬 송	 406(464) 다 합 께
성 경	 형 27:9-26 박정범 총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향해 중에 위난" 설 교 자
* 찬 송	 401(457)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고영숙 권사, II부: 권순단 권사
성 경	 마 5:17-2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율법의 완성자"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한현숙 · 흥해관: 김연민

설 교 박노철, 황 광 목사

금 요 기 도 회

※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2011 사랑의 바자 관계로
개인가도회로 모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만물은 주님의 숨씨	V. D. Tompson	유태왕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아베스의 기도처럼	L.Loyd Larson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지요	S. Liddle	류충기	강민정1	양경실	윤준현1
찬양예배	대 학 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박경주	오신옥	임아름	
영어예배	예루살렘	God's Omnipotent hand	김연준	심상희	최수환	이승민1	
수요I부	호 산 나	예수 귀하신 이름	김대권	서희숙	김윤지2	홍해란	
수요II부	시 온	주 함께 하면	R. Mauel	백경화	김진형	서유진	

<헌금송>

I부	고 등 부	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김현지1		김가희	
II부	그레이스랜드	여호수아 성을 쳤네	V. W. Stephenson	송재일			
III부	아멘관현악단	Sweet Sweet Spirit	Doris Akors	임범장			

• 표는 화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공동의회(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 / 25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2층
2. 2011 사명자대회 부장모임 / 25일(주) 오후 1시30분 202호
3. 제2권사회 직장인 기도회 / 25일(주) 주일3부예배 후 901호
4. 대입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 모임 / 28일(수) 오전 9시40분 903호
5. 제2권사회 월례회 / 28일(수) 수요일부예배 후 501호
6. 남선교회·여전도회 총무 노방전도 / 10월1일(토) 오후2시50분 104호
7. 전 도 / 25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자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7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대차상승, 도곡역출,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1-park, 삼성동월스테이트, 개포주공5)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28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사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한나 전도회(104호)

오후 8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일간팀, 제1, 제2세대반회(한타공원)

29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은마, 미도, 창실, 대차한대, 역삼역키, 국제, 개포주공6,7단지)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30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10월1일(토) 오후 3시 교역자회(한타공원)

오후 3-5시 70인전도대 토요일노방팀, 모세 선교회(한타공원)

알림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일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배들레렘 홀)
3.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관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4. 학습·세례식 / 10월 학습·세례식이 10월19일(수) 수요일, 2부 예배 시 있습니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매주 I·II 부 예배 후 602호에서, 세례 및 유아세례를 위한 교육은
매주 I·II 부 예배 후 609호에서 있습니다.
문답은 10월16일(주일) 오후3시30분 602호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례준비반 카페 참조 : 서울교회 홈페이지 → e공동체 → 세례준비반
5. 2011 사랑의 바자 / 이웃사랑, 아가페라는 건립, 농어촌 마자립 교회 돕기 2011 사랑의 바자가 9월29일(목),
30일(금) 양일간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2011 사랑의 바자 표어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
이며, 수익금은 교회 목표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쓰여집니다.
6. 주일예배 시간 영아부 운영 / 주일예배 시간에 배들레렘 홀(403호)에서
0-12개월 이하 영아를 맡음으로 양육하는 영아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월-4세까지 어린이는 유아부, 5세-7세 어린이는 유치부에서 각각 돌봅니다.
아기를 안고 예배실(본당)에 참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7. 일제심방 / 9/27(화) 11-10 16-11 9/28(수) 11-4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박희일	14-20	아브라함	김수진/김설	김사현	13-10	베드로	최유진/고정래	오민석	11-4	제2청년부	오세백
안경순	14-20	사라	김수진/김설	이종진	6교구	고등부지도	본인	김준태	6-10	대학부	임명숙/한민아
김태욱	11-4	에스터	오세백	한은실	5-13	루디아	권영숙	유현준	3-18	대학부	본인
우태우	1-12	바울	본인	한광철	5-13	안드레	한은실	박정원	12-7	대학부	김선자
김선남	13-25	마리아	윤숙자/김영수	윤지영	2-14	도르카	윤계진/곽미숙	우선영	1-12	고등부	본인
안혜경	1-12	마리아	본인	정영수	1-14	제1청년부	본인	우현주	1-12	중등부	본인
신영신	15교구	뱌뵈	본인	이정원	4-10	제1청년부	서경하/이영숙	삼정윤	교육1국	초등부	윤계진/곽미숙
송미숙	1-15	뱌뵈	정미애/김경복	주정임	3-17	제2청년부	본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앞면에서 계속

8.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과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장소: 302-306호 ·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9.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0. 의료 상담 / 정현구(치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759-2299

☞ 결 혼

1. 신랑 이재철 군(9교구 이성춘 성도 한옥순 권사의 장남)과 신계화 양(신명석 성도 방희숙 성도의 장녀) /
10월1일(토) 오후2시 광진구 웨딩데이

☞ 장례

- 1.故 김민식 권사(7교구 남영주 권사 모친 정인건 성도 장모) / 19일(월) 별세 21일(수) 천국환송예배
- 2.故 남보철 성도(남영애 선교사 부친 김한성 선교사 장인) / 21일(수) 별세 23일(금) 발인



존영을 덧입도록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을 상실해 버릴 때 힘으로는 동물만 못하고 능력으로는 기계만 못한 존재로 전락해 되니 그 존귀함을 상실하게 된다.

모름지기 자기의 존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죄를 멀리하고 창조질서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과육과 무질제, 방종과 게으른 생활은 받은 바 존영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악들이다. 방탕과 교만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해를 주게되는 극악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도 아니되고 국민의 신뢰를 빼앗기는 경우가 생겨도 아니될 것이다. 불의와 멀리 서 있는 깨끗하고 옳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존영은 덧입힐 것이다.

-이종윤 목사 신인칼럼 '순례자'에서

청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으시다.
주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